

JEW S F R JESUS TM

요즘 아무도 신분확인(ID) 없이 멀리 갈 수 없다. 상상해보라, 단순히 우리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슬쩍보는 것도 아니고, 공항, 국경 검문소,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에서 우리의 신분증을 스캔한다고 생각해보자. 또한 공항 검색대에서 줄을 서 있다가, 마침내 당신의 차례까지 와서 신분증 확인까지 보고 있는데 “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와 같은 말들을 듣는다고 상상해보자.

다들 신분도용에 대해서 들어봤겠지만, 신분 거부하는 들어보았을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시스템” 안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꼭 바코드나 스캐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플라스틱 카드나 서류가 필요치 않다. 이름, 성별, 가족 배경, 결혼 유무, 친구 관계나 직업으로 자신을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국적, 문화 유산, 그리고 또 - 어느 정도의 - 사회적 지위를 알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식별자들을 각각 갖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지를(아니면 안 들어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식별자들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여기에 속합니다”라고 알게 해주는 그 신분 식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시키는 식별자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식별자가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 식별자는 천상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



신분증 확인합시다

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요일 3:1)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창조주이자 주님으로서의 그 의로운 자리를 거부하는 시스템(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그에 속해 있지 않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닷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마땅히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신분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분이 세상의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몇몇 확실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잘못 이해되거나, 의심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거부당하거나 외부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다른 신분을 보여주는 유혹에 대해 싸워야 한다 - 세상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분을 말이다.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서 우리는 노방전도를 할 때 반드시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분 좀 확인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가 나를 유대인으로 만든다"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른 문구들을, 티셔츠, 잠바, 모자, 그리고 배지에 인쇄하고 그것들을 입는다. 사람들이 우리의 "색깔"을 볼 때, 그들은 우리의 전도지들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와 그만 이야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대놓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티셔츠 대신 양복을 입자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우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다른 이들과 비슷하다 - 우리도 왕따로 지내기보다는 섞이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주인과 그의 사명에 기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그것이 그의 사랑을 전하는데 더 좋은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티셔츠를 보고 전도지를 가져가지 않지만, 다른 이들은 바로 그 티셔츠 때문에 전도지를 가져간다 - 그리고 어떤 이들은 대화를 중단한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아직도 그 분을 모르고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 반면, 우리에게 이것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속한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만이 이러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의 친구 Steve Kaplan은 항상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리고 노방전도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래서 Steve는 주님께 대한 대화를 어디서나 한다. 모든 이들이 "예수 의류"를 입고 다님으로서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Steve의 대담함과 끈기를 존경한다. 당신은 어떤가?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거부당함을 뜻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가 됨으로서 겪는, 직접적인 결과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만든 직접적 결과인 예수님, 그 분과 정체성을 같이 함으로서 우리가 겪게 될 수치와 거부를 얼마나 자주 생각해봤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 응답받은 기도,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

망과 보통 연결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과 박해 또한 하나님 사랑의 실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한다(빌 1:29). 우리가 특히 고통스러운 "선물"들을 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번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대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알도록 구하지 말아야 한다 -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아버지와 같이, 아들과 딸도 같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를 다음과 같은 기회로 삼자.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씻기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도록 힘을 주시게끔 하는 기회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대로, 세상에 우리의 진짜 신분증을 보여주자.

세상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것을 뭐든지 거부하는 것 - 이를 경험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그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들을 그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Vol. 12 No.7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그리고TT로도후원을받습니다.

선교소식

이스라엘

ODED COHEN이 보고합니다: AMI*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었는데,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행을 떠난 후에, 우리는 AMI를 집회에 데려갔고, 그는 그 때부터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저는 AMI에게 연락해서 대화도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마침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나요? AMI는 대답하기를, "아 네 네 진짜로요." 그는 덧붙이기를, "믿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는 벌써 어머니께 말했다고 그녀 또한 믿음에서 멀지 않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친구들에게 전도했는데 - 그 중 한 명은 벌써 우리 선교사들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말하기를 자기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AMI의 영적 성장과 그의 친구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BIMINI COHEN이 보고합니다: 뉴욕에 있는 우리 선교사 중 한 명이 이메일로 요청했습니다 - AMI*를 도와주기로 말입니다(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믿는 이로 뉴욕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짧은 구원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그를 예전에 알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남편 ODED와 AMI는 새신자 시절에 1999년에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성경공부에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 해변의 금문교 밑에서 AMI의 세례식에 참석할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연락이 끊어졌었지요. 얼마 전 쯤에 우리는 그가 생각나서 그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우리 가까이에 삽니다.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믿지 않는 부인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뉴욕 / 영국

SIMON LISSAK이 보고합니다: 저는 뉴욕의 DIAMOND DISTRICT에서 JACOB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십대의 젊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의 질문에 답했고 우리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고 추후에 만날 것을 제시했습니다. JACOB은 동의했고 그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시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저는 그 다음에 LAUREN이라는 유대인 이십대 여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영국인이었고, 런던에 살았으며 심지어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그리고 뉴욕에 있던 몇 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LAUREN은, 가족들이 나가는 정통 유대교 회당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녀의 믿음이 붕 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의 믿음으로서 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 완전히 채워졌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메일 주소를 제게 주었고, 제가 뉴욕 훈련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독일

DINA MARKOVA가 보고합니다: OLGA*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녀를 전도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OLGA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녀와 연락을 그만두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녀를 동네에서 보았고, 그녀는 나에게 왜 그 동안 연락을 안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그녀는 지난 방문보다 꽤 관심을 갖고 있었고 더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 하러 자기의 집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곳으로 갔고 우리가 맨 처음 한 행동은 바로 "죄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OLGA는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IGOR SHELEST가 보고합니다: 저는 ZLATA라는 나이 많은 여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자매가 이 병으로 소천하였기 때문에 저는 ZLATA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에 그녀를 방문했었고 이번 방문에는 죄에 대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복음을 듣도록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그녀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원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여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녀는 어떤 것이 그녀의 속마음을 채운 듯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표정에 무언가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가명



JEW'S
FOR
JESUS

Kathy는 커다랗고 웃기게 생긴 안경과 광대코를 쓰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주최로 Purim(역자주: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하만의 악한 계교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구한 것을 기념하는 파티)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적절한 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Megillah(에스더서)를 읽고, 하만이 나오는 대목마다 grogger(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휘두르니까, Kathy가 안심하고 어깨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괜찮아, 이건 아주 익숙한 행사이고 난 지금 무척 재미있어. 그 후 우리는 hamantaschen(전통 Purim 파티)에서 모였고,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정



Laura Barron

우연은 없다

통 유대교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이방인하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모들, 친삼촌들은 정통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녀를 교회에 나가게 했습니다.

Kathy는 계속하여 "영적인 무헌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사학위를 위한 수업을 마치기 위해 토론토에 있었고, 그녀의 룸메이트는 "우연찮게도" 제가 아는,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우연찮게도" 그녀가 우리의 Purim 파티에 오게된 이유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더서는 "우연찮게도"로 가득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그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 후에 방문할 수 있을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좀 주저하였지만 허락하였습니다. 그녀의 석사논문 주제가 바로 홀로코스트였기 때문에 저는 Survivors Stories 디비디와 우리 책자인 Questions & Answers를 모두 들고 갔습니다.

같이 동석한 그 한 시간 동안 그녀는 열려있고 흥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라고 생각한 이가 그녀의 인생 바로 지금 이 교차로에 있는지 제가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예수 부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부활이 기독교 믿음에 중요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녀가 믿음과 씨름하고 있는 문제라면, 이것을 열려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만나려고 그녀와 연락했을 때 저는 그녀의 반응에 놀랐고 기뻐하였습니다.

안녕 로라, 친구와 함께 그 디비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어. 이사가 53장에 무척 놀랐고, 내 기말고사가 4월 20일에 있으니까 그 후에 너와 만났으면 좋겠다. 시험 다 끝난 후에 친구약 모두 성경 통독을 하기로 결정했어. 옛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읽은 이후에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지.

우리가 유월절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성경과 공책과 제가 준 책자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제로 들어가서, 그녀는 제가 준 기사들과 책자들이 그녀의 질문에 답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열고 새로운 질문들의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을 해나가는 동안 저는 그것들이 그녀의 주된 질문들이 아님을 직

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진짜 큰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모두 진리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만약 개종을 한다면 나의 bubbe와 zayde(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고 속상해 할 것 같아. 그 분들이 겪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낙담하거나 속상한 채로 그 방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고 있고 그녀가 그 부름을 결코 거부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athy는 학위를 마치고 토론토를 떠났지만, 우리는 화상채팅을 통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Kathy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Larra Barron은 토론토 지부장 Andrew Barron과 결혼하여 Rafael, Ketzia, Simona 세 자녀를 키우느라 바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캐나다 소식지, 그리고 남아프리카 소식지 또한 편집하느라 더욱더 바쁘지요!